

웃음이 희망입니다  
KBS N

2016  
ADIEU

한 해 동안 KBS N 매거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웃음을 담아보았습니다.  
KBS N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KBS N

magazine

DECEMBER. 2016

VOL.09

KBS N



2016-2017 프로배구



**KBSN SPORTS** 와  
함께하세요!

CONTENTS

DECEMBER. 2016 VOL.09



N special

- 04 ❶ 2016 KBS N 프로그램의 모든 것
- 10 ❷ RE-VIEW 2016, 올해의 기록들
- 16 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
  
- 18 On air  
KBS N 신규 프로그램 <연애를 부탁해>, <주간TV>, <닥터 하우스>
- 20 N program  
너희가 배구를 아느냐  
<스페셜V> '아나 vs 아나' 이호근, 이향 아나운서
  
- 22 Interview  
스페인 바르사 듀오 백승호, 이승우 인터뷰
- 24 N news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제작 운영사업 수주
- 26 Event  
KBS N 신규 프로그램 응원 이벤트

KBS N Magazine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6.12.5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297  
 기획 홍보팀 이용주, 최고은, 이지희  
 제작·디자인 디앤씨(02-792-5444)



www.KBSN.co.kr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BS N 홍보팀 pr@kbsn.co.kr

# All about KBS N 2016 Program

2016년 한 해 KBS N은 타깃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자체 콘텐츠를 선보였다. 핫한 예능 프로그램부터 명장면을 포착해낸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까지,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2016년 KBS N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았다.



# 예능 & 버라이어티의 모든 것

KBS N의 예능은 다채롭다. 육아부터 뷰티까지 생활밀착형 정보를 맛깔나게 버무려내고, 덕후들의 B급 정서를 담아내는가 하면, 연예가의 흥미로운 소식을 랭킹으로 풀어낸다. '스포츠=삶'이라 외치는 이들을 위한 예능도 빠지면 섭섭할 터. 올해도 열심히 달린 KBS N의 예능 프로그램을 한곳에 모았다.

## #생활밀착

**엄마는 고슴도치**  
시즌 1, 2

기존 육아 프로그램과는 다른, 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실험 관찰 카메라로 아이들의 속마음을 읽어낸다. 재미와 공감에 더해 '육아 정보'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으로 3040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못말리는육아일기 #거짓말탐지기 #공동관찰카메라 #내아이의속마음

**슈퍼디자인마켓**

바야흐로 K디자인의 시대. 국내 최고의 산업디자이너와 연예인 패널리 한 팀을 이뤄, 스타가 의뢰한 디자인 제품을 선보인 후 최고의 아이템을 가린다.

#디자인한류 #스타콜라보레이션 #취향저격아이템

**뷰티바이블 2016**

벌써 시즌 5를 맞은 KBS N의 간판 뷰티 프로그램. 뷰티 워너비 제시카와 레인보우 재경이 생활밀착형 뷰티 정보부터 간간한 아이템 검증까지 뷰티의 모든 것을 알려 준다.

#리얼뷰티 #메이크업고민상담 #인생템추천

## #이슈메이킹

**차트를 달리는 소녀**

'갱생아재' 이상민과 '상큼발랄 소녀' 초아가 만나 랭킹으로 풀어내는 아이돌 차트쇼. 알파고 뺨치는 스마트함과 네티즌을 넘어서는 수사력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이돌 랭킹을 선보였다.

#아이돌랭킹 #소녀와아재 #순정자극

**차트를 달리는 남자**

'빙의의 신' 권혁수와 '음악의 신' 이상민이 씩씩하게 풀어내는 스타 랭킹쇼. 당신이 궁금해하는 연예인의 사정을 차트로 풀어냈다. 뜬금없는 코스프레와 돌발퀴즈는 또 다른 볼거리.

#스타랭킹쇼 #다중빙의연기 #달려가아아아아

**최강남녀**

"이 분야에선 내가 최고"라는 대한민국 최강남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덕후들의 불꽃 튀는 자존심 대결 끝에 최강의 주인공을 가리는 취향저격 버라이어티.

#전국덕력자랑 #덕후들모여라 #명예의전당

## #스포츠

**볼야성**

프로야구 10구단의 대표 연예인 아덕(야구 덕후)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철저한 성적지상주의로 '팬심'을 자극하는, 갑론을박 야구 버라이어티.

#주간야구생활 #행복은성적순 #남희석은한화팬

**김국진의 개백리그**

6인의 골프초보 연예인이 '100일 안에 100타 개기'에 도전한다. 김국진의 개성 만점 팀 전수와 김가형 프로골퍼의 정통 레슨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신개념골프예능 #개백도전 #골프레슨

# 스포츠 중계의 모든 것

KBS N은 스포츠 경기의 박진감과 생생한 현장감을 담아내기 위해 두 발로 뛰어왔다. 스포츠 중계에는 연습이 없다. 바로 실전으로 간다. 프로야구, 축구, 프로배구, 올림픽 등 화제의 경기가 있는 곳을 쫓아다니며 최고의 생중계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 한 해 KBS N Sports의 발자취를 쫓았다.



## 야구

**2016 KBO리그**  
04.01 ~ 11.02



올해 프로야구는 포스트시즌까지 중위권 팀들의 경쟁이 뜨거웠다. 얽치락뒤치락하는 승부를 잡아내기 위해 4D CAM, 헬리캠, 초고속 카메라 등 최첨단 중계기술을 선보였다. 또 이용철, 송진우, 안치용, 조성환, 장성호 해설위원의 깊이 있는 해설로 경기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magazine** 아이러브 베이스볼

"대한민국 KBO리그의 시작과 끝"은 올해도 <알럽베>가 책임졌다. 8년의 역사, 정확한 데이터와 영상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분석, 오호주, 이항 아나운서의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였다. 특히 9월 27일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일일 해설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 축구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USA 2016**  
06.04 ~ 06.27



남미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코파 아메리카'가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렸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축구강호들이 세기의 열전을 벌인 가운데, 전 경기를 생생하게 중계했다.

**스페인 세군다 디비시온 B**  
08.21 ~ now

'한국축구의 미래' 이승우, 백승호 선수가 속해 있는 2016-2017 스페인 세군다B(3부 리그)를 단독으로 중계하고 있다. 두 선수의 활약상을 전하기 위해 스페인 현지에서 중계차를 투입하는 등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농구

**2016-2017 WKBL**  
10.29 ~ now

걸크러쉬의 매력으로 가득한 여자프로농구. 김기웅 캐스터와 정은순 해설위원의 '로맨틱 코미디 중계'는 올해도 계속된다. 또 역대급으로 불리는 '여고생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의 KB스타즈 입단으로 흥행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 배구

**2016-2017 V리그**  
10.15 ~ now



프로배구는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남자부 7개, 여자부 6개 팀이 6개월의 대장정에 올랐다. KBS N은 뛰어난 중계 인력과 첨단 방송장비로, 국제배구연맹도 인정할 세계 최고 수준의 배구 중계를 선보이고 있다.

**magazine** 스페셜V

원조 프로배구 매거진 <스페셜V>가 돌아왔다. 홍진호, 조은지 아나운서가 새롭게 MC를 맡았고, KBS 손기성 기자가 전문 패널로 합류했다. 한 주의 따끈따끈한 배구 이슈뿐 아니라 '리얼습격 닥터V', '힐링데이트 V'를 통해 선수들의 인간적인 매력과 넘치는 끼를 확인할 수 있다.



## 올림픽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세계예선전**  
05.14 ~ 05.22

프로배구 주관 방송사로서 일본 도쿄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예선전'을 단독으로 위성 생중계했다. 총 8개국이 참가해 풀리그로 최종 순위를 가리는 예선전에서 한국은 승점 13(4승 3패)으로 4위에 올라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08.06 ~ 08.22



세계인의 축제 리우 올림픽 기간 동안 케이블 채널 최초로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비치발리볼 5개 종목 39개 경기를 생중계했다. 자국 선수들의 경기는 물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중계하기 위해 현지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등 남다른 각오로 중계에 임했다.



## 기타

**벨라토르, 글로리**



2000년대 초중반 한국 격투기 중계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KBS N Sports는 벨라토르와 글로리 중계로 '격투기 명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종합격투기 대회 벨라토르 MMA와 독점 계약해 방송하고 있으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킥복싱 대회로 불리는 글로리의 주요 경기를 위성으로 생중계한다.

**2016 동아일보 경주국제마라톤대회**  
10.16

1994년 출범해, 해마다 국내외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주국제마라톤대회가 KBS N Sports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실황 생중계를 통해 참가 선수들의 레이스는 물론 천년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담아냈다.

# RE-VIEW 2016, 올해의 기록들

눈 깜짝할 사이 흘러가 버린 한 해. 하지만 돌아보면 웃음과 감동, 영광의 순간이 있었고 분명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 2016년 KBS N의 주요 이슈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짚어 보자.

Jan.

## ▶ 제 8대 이준용 대표이사 취임

2016년은 이준용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희망차게 시작되었다. KBS N 제 8대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이준용 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능동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미래전략, 경영혁신을 강조하며 자체제작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최우선 도전 과제로 꼽기도 했다.



Mar.

## ▶ 광고주 대상 미디어 설명회 개최

KBS N은 광고주 대상 미디어 설명회를 개최하며 2016년 'Show me the KBS N'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새로운 광고상품 등을 선보였다. "KBS보다 새롭고(New), 미디어 트렌드의 다음(Next)을 준비하며, 여러 네트워크(Network) 플랫폼을 움직여 시너지를 내는 곳"이라며 KBS N의 경쟁력을 어필했다. 여자 아나운서들의 댄스 퍼포먼스와 스포츠 아나운서들의 화려한 런웨이, 야구 해설위원들의 무대 인사 등이 이어져 강렬한 임팩트를 주기도 했다.



## ▶ 홍콩 TVB 콘텐츠 제휴 협약

KBS N은 지난 3월 15일 홍콩 최대 민영 방송사 'TVB(Television Broadcasts Limited)'와 콘텐츠 제휴 협약을 맺었다. 홍콩 TVB는 TVB인터내셔널, TVB네트워크 등 약 6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최대의 민영 방송사다. 이번 협약으로 KBS N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TVB의 글로벌 위성 채널인 TVB8을 통해 홍콩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2개국에 방영되게 되었다.



## ▶ KBO리그 기자 간담회 개최

3월 21일, KBS N Sports는 2016 프로야구 KBO리그 개막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중계 아나운서와 캐스터, 해설위원 등을 소개하는 공식적인 자리로 KBO의 높은 인기만큼 간담회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철, 송진우, 조성환, 안치용 등 기존 베테랑 해설위원에 역대 최연소 2000 안타에 빛나는 장성호 해설위원의 전격 합류를 알려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치 있는 답변이 이어졌다. KBS N Sports는 공식 야구 여신 오호주 아나운서는 자신의 매력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쁜 아나운서"라는 밝혔고 장호성 해설위원 "나만의 색깔이 있는 해설을 하겠다"며 첫 해설에 대한 자신감을 비쳤다. 이용철 해설위원은 "이번 시즌 시청률 1위를 재탈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 ▶ 케이블TV방송대상 수상

청춘 꿈 지원 프로젝트 <청춘하라>가 제 10회 케이블TV방송대상에서 작품상 기획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30 청춘들의 버킷 리스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KBS N은 케이블 방송 업계에서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상을 수상하는 등 쾌거를 이뤘다.





Jul.

▶ **KBS Kids 어린이체험전 부산 벡스코 진출**

실내 어린이 체험전 <출발 키즈 드림팀-지구 한 바퀴 체험전>이 부산 벡스코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어린이전문채널 KBS Kids에서 기획한 본 체험전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인기 체험전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리우올림픽을 맞아 20개의 체험존을 5대륙과 5대양으로 구성해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해 부산-경남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Aug.

▶ **KBS N Sports, 프로야구 최고시청률 기록**

지난 8월 2일, KBS N Sports에서 중계한 <한화:KIA> 경기의 시청률이 3.713%(TNMS, 전국)로 올 시즌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KBS N Sports는 이날 동시간대 스포츠 채널은 물론 케이블 채널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들을 제치고 시청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KBS N Sports는 장성호, 안치용 해설위원과 강성철 캐스터의 중계로 생생한 현장의 열기를 고스란히 안방까지 전달하며 같은 날 프로야구를 중계한 타 채널의 4배 이상의 시청률을 달성했다.



▶ **리우 올림픽 케이블 최다 경기 생중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KBS N Sports는 리우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이벤트 덕분에 더욱 뜨겁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다. KBS N Sports는 리우 올림픽 기간 동안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비치발리볼 등 5개 종목을 39개 경기를 생중계하며 케이블 채널 최다 경기 생중계를 기록했다. 이를 위해 현지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서울 스튜디오에서도 밤샘 중계를 하는 등 전력을 기울였다. 특히 농구와 배구, 축구 등 구기종목에 전문 해설진도 보강했다. 농구에는 김남기, 조성원, 손대범 해설위원, 배구에는 이세호, 박희상 해설위원, 축구에는 김대길, 한준희, 박찬하, 최경식 해설위원 등을 투입해 생생하고 정확한 중계를 펼쳤다. 또 인기종목 외에 제3국의 수준 높은 경기를 중계해 시청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12시간의 시차와 불안한 현지 상황, 중계 일정 변동 등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을 고스란히 전달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사히 첫 올림픽 중계를 마칠 수 있었다.



▶ **KBS Drama 케이블 전체 시청률 1위**

<태양의 후예>가 올 상반기를 달궜다면 <구르미 그린 달빛>은 하반기 안방극장을 평정했다. 이런 인기는 고스란히 시청률 지표로 나타났다. 지난 8월 31일, 드라마 전문 채널인 KBS Drama가 tvN을 제치고 케이블 전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시청률 견인의 주역인 <구르미 그린 달빛> 외에 <내 마음의 꽃비>, <여자의 비밀>도 모두 1%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 웃음이 희망입니다



Sep.

## ▶ '웃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

KBS N은 9월부터 인천대교와 함께 '웃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웃음이 주는 치유력과 희망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마련된 본 캠페인은 매달 사회공헌캠페인 영상을 1편씩 제작, KBS N 보유 6개 채널에 방송한다. 천재 바이올린 소녀 유에스더의 꿈을 다룬 '소녀와 바이올린' 편, 영종도 갯벌에 대한 사랑과 실천을 다룬 '다시 살아나는 갯벌' 편 등이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웃음이 담긴 사진'을 응모하는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해 총 1,600여 명의 시청자가 참가하기도 했다.



## ▶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알럽베 특별 출연

지난 9월 27일 <아이러브 베이스볼>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일일 해설위원으로 깜짝 출연했다. 평소 야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리퍼트 대사가 <알럽베> 팬이라며 출연을 자청한 것. 한국 야구에 빠진 계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LA 다저스 박찬호 선수를 통해 KBO리그를 알았고, 야구 직관을 통해 진정한 한국 야구의 매력에 빠졌다고 밝혔다. 선수들의 이름을 대는 것은 물론, 구단별 전력을 분석하고, 심지어 두산 베어스 오재원 선수의 응원가까지 따라 부르는 그의 모습은 어느 야구팬과 다름이 없었다. 일일 해설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야구팬으로서 <알럽베>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마크 리퍼트 대사의 재방문을 기대한다.



## ▶ 2016 광주 에이스 페어 참가

지난 9월 2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최대 문화 콘텐츠 축제인 '2016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시 행사로 37개국 430개사에서 690개의 부스를 열고 외국 바이어와 관람객을 맞는다. KBS N은 이곳에 주요 MPP(복수방송채널사용자)로 참여, KBS N의 6개 채널을 홍보하고 올해 방송 지표인 '웃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을 알렸다. 홍보 부스는 각 채널을 상징하는 6개의 기둥과 모니터, 중앙의 멀티비전으로 꾸며졌고 주요 프로그램과 '웃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 영상이 상영됐다. 개막식에서는 '웃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의 첫 번째 주인공이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 유에스더 양이 KBS N 부스를 찾아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였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재능을 펼친 유에스더 양의 사연과 함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울려 퍼지자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 공연을 감상하고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한편 전시부스를 찾은 관람객에게는 페이스북 친구 맺기 이벤트를 통해 색색의 스마일 물병을 선물해 인기를 끌었다.



Nov.

## ▶ 2018 평창 패럴림픽 개폐회식 수주

지난 11월 KBS N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제작운영 대행사업'을 수주했다. 이로서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패럴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의 연출제작과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번 수주는 KBS N만이 아니라 계열사인 KBS 미디어, KBS 아트비전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수주한 첫 사례로, 남다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폐회식을 통해 KBS N은 '다름을 인정하고 전 인류가 서로 공존하자'는 메시지를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초대형 퍼포먼스로 펼쳐낼 계획이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평창 일대의 주요 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연말은 무슨 연말!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곳곳에 트리가 세워지고 캐롤이 울려 퍼지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든다. 나홀로 방콕 족부터 연인, 가족 모임까지. 취향 따라 목적 따라 특별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KBS N 연말 특집 프로그램

추위도 싫고 복적이기는 인파도 피하고 싶다면 따뜻한 집에서 TV보며 꿀 까먹는 게 최고다. KBS N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특집 방송을 준비했다. 올 한 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몰아보기,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인기 만화 극장판 방송 등이 특별 편성되어 연말의 즐거움을 더해줄 예정이다.



### KBS Drama <태양의 후예>, <구르미 그린 달빛> 특집 편성

올해 가장 큰 인기를 누린 두 배우 송중기와 박보검은 연말 KBS 연기대상에서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라이벌이기도 하다. KBS Drama 채널에서는 연말, <태양의 후예>와 <구르미 그린 달빛>을 특별 편성해 두 남자의 매력 승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최고 시청률 38.8%라는 '어려운 걸 해낸' 주인공 송중기. 꿀 떨어지는 눈빛과 감성 대사로 "내 사람이다"를 외치게 한 꽃세자 박보검. 두 남자의 활약을 지켜보고 매력을 만끽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자.

### KBS Dr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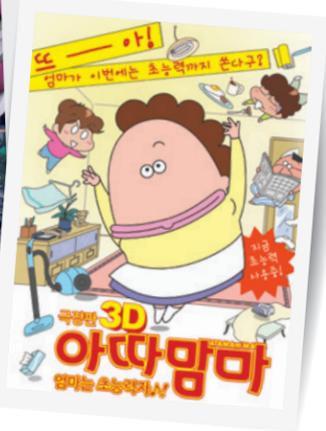
12/5(월)부터 매주 월~금 방송  
19:40 : 구르미 그린 달빛  
21:00 : 태양의 후예

### KBS Kids <포켓몬스터 극장판> 4편, <아따맘마 극장판 엄마는 초능력자>

겨울 방학을 맞아 KBS Kids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을 방영한다. 흥미진진한 모험과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극장판 4편(<디아루가 VS 펠기아 VS 다크라이>, <결정탑의 제왕 엔테이>, <루기아의 탄생>, <후파 광륜의 초마신>)을 선정,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특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아따맘마> 극장판 '엄마는 초능력자'를 방영,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을 갖게 된 엄마가 겪는 해프닝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보여준다.

### KBS Kids

12/24(토), 12/25(일) 방송



## KBS N 공연 & 전시

매해 돌아오는 연말 시즌이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KBS N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말을 색다르게 보내고 싶은 이들을 위해 공연, 전시 등의 특별한 문화 콘텐츠를 마련했다. 2016년의 마지막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파티 공연부터 아이들과 따뜻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실내 전시까지 한데 모아보자.

### <크리스마스 N 파티>

핫한 대세 래퍼의 무대를 한 자리에서 감상하는 기회가 찾아온다. 12월 23일(금)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N 파티>가 그것. 감성 래퍼이자 음원 강패인 매드클라운을 비롯, 플로우식, 마이크로닷, 헤이즈, 레디, 올티 등 래퍼 10명이 출연, 150분간 뜨거운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공연 시작 전 뷔페에서 식사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도 400명 한정 판매한다. 맛있는 음식과 흥겨운 라이브 공연으로 한 해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풀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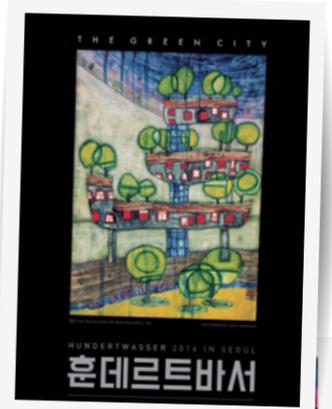
2016.12.23.(금)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



### <Green City>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 바서는 건축과 자연,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 예술가다. 오는 12월 14일(수)부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훈데르트바서 한국특별전 <GREEN CITY>에서는 이런 그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노란 집들>, <대성당> 등의 회화와 슈피텔라우 조각상, 쿤스트하우스빈 등의 건축모형 등 약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도슨트도 마련되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환경과 자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2016.12.14(수) ~ 2017.3.12(일)  
세종미술관 전관



###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2017>

특별한 카운트다운 퍼포먼스와 함께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을 맞이하는 시간.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2017>가 오는 12월 30일(금), 31일(토) 양일간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Jay Park(박재범), 비와이, 싸쎌, 자이언티, 버벌진트, 사이먼디, 빈지노, 도끼 등 최고의 힙합신과 EDM 음악이 어우러져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1년에 단 하루뿐인 기회를 놓치지 말자.

2016.12.30(금) ~ 12.31(토)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



### <브릭 라이브 인 코리아>

세계적인 인기 전시인 '브릭 라이브'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상륙, <브릭 라이브 인 코리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약 150만 개의 레고 브릭이 가득한 '컬러 브릭 존'과 다채로운 색상의 브릭들로 채워진 '믹스 브릭 존', 세계 여러 도시와 건축물들을 구현한 '아키텍처 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이 밖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체험존을 마련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고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할 예정이다.

2016.12.17(토) ~ 2017.1.31(화)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전시 2홀 A



# KBS N 신규 프로그램 3인방, 취향 저격하러 왔습니다

신선한 콘셉트와 흥미로운 이야기의 신규 프로그램 세 편이 올해 마지막을 풍성하게 장식한다. 신개념 연애 드라마, 연애사 토크쇼, 하우스 다이어트 프로젝트.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설레고 반가운 첫 인사다.



## 집 다이어트 프로젝트 <닥터 하우스>



'비움의 기술'과 '단순한 삶'을 지향하지만 막상 집안에 쌓인 온갖 물건은 정리하지 못하고 묵혀두기 일쑤다. '언젠간 쓰겠지', '내 추억이 모두 담긴 물건인데...', '버리면 아깝다'고 생각해 쌓아둔 물건들 때문에 편히 쉴 공간조차 없어진 현실.

<닥터 하우스>는 지나치게 많은 물건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집을 변화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집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례자에게 '하우스 마스터'인 네 명의 MC가 찾아가 현명하게 버리는 방법을 전수해준다. 주부 9단 프로 살림꾼 박미선,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남 서장훈, 대세남 양세찬과 개그맨 김재우가 하우스 마스터로 나서 각각의 정리정돈 노하우를 전수하고 의뢰인을 돕는다.

의뢰인이 <닥터 하우스>에 SOS를 보내면, 하우스 마스터가 직접 문제의 집으로 출동한다. 하우스 마스터는 관찰 카메라로 집안 상태를 파악, 현장을 찾아 살림살이를 점검한다. 불필요한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물건과의 이별식'을 거행하면 비로소 집 다이어트가 시작된다. 집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법. 답답하고 어수선한 집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닥터 하우스>의 처방을 눈여겨보자.

● 첫 방송 12/22(목) 밤 8시 10분 **KBS joy**



## 연.알.못을 위한 연애 쇼크 드라마 <연애를 부탁해>

"썸남의 행동, 그린라이트일까?" "자꾸 단점만 보이는 남친,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 생각 할수록 고민만 늘는 연애 문제. 누가 속 시원하게 해결 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애를 부탁해>는 연애 때문에 밤마다 이불킥을 날리는 연알못(연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찾아왔다. 연애의 문제를 겪는 사연들을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재구성, 팍 막힌 연애의 돌파구를 찾고 진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연인들이 싸울 때마다 가상의 목소리가 등장해 조언을 해주는 '러브 보이시', 사랑 피해자를 대신한 대리 복수극 '연애중결서비스' 등의 코너로 공감과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연애중결서비스'에는 연애 해볼 만큼 해본 '센 언니' 나르샤가 출연, 연인의 배신으로 분노에 떠는 여자들을 대신해 상대방에게 통쾌한 복수를 날린다.

매번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이라면 <연애를 부탁해>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황당과 분노, 웃음과 통쾌함을 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 레벨이 업그레이드될 터이니.

● 첫 방송 12/14(수) 밤 11시 10분 **KBS joy**



## 타임 슬립 TV 연애사 <주간 TV>

'역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은 연예계에도 유효하다.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연예계의 사건 사고들에는 언제나 '깊은골 과거'가 있기 마련. <주간 TV>는 스타들의 결혼이나 출산, 파혼, 사건사고 등 다양한 연애사(史)의 민낯을 파헤치는 밀착 탐사 토크쇼다. 2016년 현재의 핫한 연예계 이슈부터 시작해 2006년, 1996년, 1986년 등 10년 단위로 거슬러 올라 각 그 시절의 TV 프로그램, 연예 신문, 연예 잡지, 개봉 영화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고 재조명한다. 또 과거 세간을 뒤흔든 연예계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 연예계 기자나 관련 인물이 등장해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뒷이야기를 낱알이 밝힐 예정이다.

출연진도 강력하다. 프로그램마다 노련한 진행을 선보이는 이승연이 MC를 맡고 연예계 마당발인 솔비, 김일중, 조영구 등이 패널로 출연해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을 자랑한다. 대한민국 연예계 30년사의 굵직한 사건에 대한 고급 정보가 대량 방출될 예정이니 놓치지 말자.

● 첫 방송 12/15(목) 밤 11시 **KBSrama**



# 너희가 배구를 아느냐?

달콤 살벌 배구 커플  
이호근, 이향 아나운서

“너 그거 아냐?”  
“그러는 오빠는 그거 아냐?”  
나란히 앉아 투닥투닥 이야기를 주고받는 남과 여.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그들은 <스페셜V> ‘아나 vs 아나’ 코너를 진행하는 이호근, 이향 아나운서다. 시청자들에게 배구 역사는 물론 배구 자체를 더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 연기 도전에 나선 두 아나운서의 사연을 들어보았다.



<스페셜V> 매주 월요일 밤 9시 KBSN SPORTS 방송

## 이호근 vs 이향, 배구 커플의 속사정

“제가 KBS N에 입사한지 5년이 되었고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맡았었지만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건 ‘아나 vs 아나’가 처음이에요.(이호근)”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묻자 이호근 아나운서에게서 돌아온 답이다. <스페셜V>의 한 코너인 ‘아나 vs 아나’는 배구 역사에 길이 남을 V리그 명승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이호근, 이향 아나운서가 코멘터리 형식으로 과거 명승부를 해설해 준다.

“처음 코너 기획할 때부터 편하고 쉽게 내용을 전달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다 보니 ‘연인’이라는 콘셉트가 잡히고 상황극 연기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주변에서 저희의 연기를 너무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이호근)”

이호근 아나운서의 설명처럼 두 아나운서의 어색한 상황극 연기는 ‘아나 vs 아나’ 코너의 재미를 만드는 요소다. 산전수전 다 겪은 입사 5년 차의 이호근 아나운서는 거부감이 덜하겠지만, 아직 파릇한 신입 아나운서인 이향 아나운서에게는 ‘하늘같은 선배’와의 연인 설정이 당황스러웠다고.

“이호근 선배님과와는 연차 차이도 있고 사적으로 대화할 기회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연인 연기가 어렵고 어색했는데 선배님이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리드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이향)”

“사실 아나운서가 중계나 방송 진행도 아닌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이향 아나운서가 밝고 긍정적으로 잘 받아줘서 고맙게 생각해요.(이호근)”

로맨틱과 코믹 사이를 오가는 ‘아나 vs 아나’ 속 역할처럼, 장난스러움 뒤의 진지함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두 아나운서 덕분에 촬영장은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 아는 만큼 즐거워지는 배구의 힘

‘아나 vs 아나’에서는 매주 배구 역사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명경기를 소개한다. ‘1996년 슈퍼리그 결승 4차전 고려증권 vs 현대자동차서비스’ ‘2005년 삼성화재 vs 현대캐피탈’ ‘2008-2009년 여자부 챔프 4차전 흥국생명 vs GS칼텍스’ 배구 팬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최고의 라이벌 팀이 벌이는 흥미진진한 명승부에 두 아나운서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더한다. 여기에 임도현, 이성희, 마낙길, 김상우, 후인정 선수의 모습은 소녀 부대를 몰고 다녔던 과거 배구 전성기를 추억하게 한다.

“‘아나 vs 아나’ 덕분에 예전 경기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90년대 후반엔 배구 인기가 뜨거웠고 스타 선수들도 많았잖아요. 그 활약을 다시 보다보면 배구의 매력에 더 푹 빠지게 되죠.(이향)”

이향 아나운서의 말처럼 최고의 팀과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다보면 자연스럽게 배구에 입덕(?)하게 된다. 지루할 틈 없는 경기 진행과 실타래처럼 얽힌 플레이. 여기에 인간 신체 능력의 최고치를 보여주는 듯한 선수들의 움직임은 배구만의 매력이다.

“배구는 같은 경기를 여러 번 봐도 볼 때마다 새롭고 재밌어요. 선수나 전략에 따라 다른 면이 보이기도 하고요. 시대에 따라 달라진 룰이나 스타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이호근)”

“배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배구를 더 재미있고 신선하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희 ‘아나 vs 아나’가 배구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이향)”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건 배구 경기뿐만이 아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라이벌 팀의 명경기가 소개될지, 호근과 향이의 로맨스는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매 회 더 기대를 모으게 되는 ‘아나 vs 아나’ 덕분에 이번 시즌 V리그가 더 즐겁다.



#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스페인 바르사 듀오  
백승호, 이승우 인터뷰

스페인 세군다B(3부 리그)의 바르셀로나B에서 뛰고 있는 백승호(바르사B), 이승우(후베닐A) 선수가 '2016 U-19 수원 컨티넨탈컵 대회'를 맞아 한국을 찾았다. 바르사 듀오의 활약은 이번 대회에서 유독 빛났다. '한국축구의 미래'로 평가받는 바르사의 두 선수를 만났다.



## 수원 컨티넨탈컵을 맞아 귀국했다. 근황은?

**백승호**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몸 상태를 더 끌어올려서 소속팀 경기에 자주 나서고 싶다. 바르셀로나B(이하 '바르사B')에서 윙으로 뛰고 있는데,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싶다.

**이승우** 축구는 늘 즐기면서 재밌게 하고 있다. 올해 초 FIFA 징계가 풀리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바르셀로나 유스 팀인 후베닐A에서 뛰고 있는데, 팀 성적도 좋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감독님과 동료들의 신뢰가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뛰다보니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것 같다.

## FIFA 징계로 2년 넘게 공식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백승호**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 선수는 경기를 뛰어야 그 가치가 빛나는데,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럴 수 없었다. 운동하는 것과 경기에 나가는 것은 다르다보니, 경기력도 체력도 떨어졌다. 징계가 풀리고 출전 기회가 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정신적으로 힘들 땐 가족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됐다. 스페인에선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지금 한국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

**이승우** 한동안 훈련에만 참가하고 실전에는 나서지 못했다.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었다. 지금은 즐기면서 축구를 하고 있다.

## 제라르 로페스 감독이 이끄는 바르사B는 어떤 팀인가?

**백승호** 현재 세군다B(3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팀이고, 2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보다 성적도 좋고, 팀 분위기도 좋다. 감독님이 뛰어난 선수 출신이고, 젊은 분이셔서 선수들과 친밀하고 편하게 대해주신다. 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승우** 프리시즌과 시즌 중에 바르사B팀에서 경기를 뒀 경험이었다. 성인팀이고 프로라 그런지 후베닐A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베테랑 선수, 나이 많은 노련한 선수들이 많아 경기장 안에서 치열하다. 특히 공격진 라인의 선배



들은 내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선의의 경쟁자들이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카를레스 알레나 선수도 현재 바르사B팀에 있는데, 항상 함께 축구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럴 수 있도록 내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다.

## 기술적으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뭐가?

**백승호** 볼 소유나 패스에 강점이 있는 것 같다. 포워드도 보고, 전방 공격수로도 뛰면서 공격의 흐름을 읽는 눈이 생겼다. 골 결정력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승우** 기술적으로 꼭 하나를 고른다면, 드리블이나 패스 쪽에 강점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살려나가고 싶은 부분이다.

##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는 모습을 고대하는 팬들이 많다.

**백승호** FC바르셀로나(1군)의 팀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일단 올라가면 선수들이 일일이 한 명씩 악수를 해준다. 옆에서 같이 훈련을 하는데 1분 1초, 불터치 하나하나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확실히 된다. 단기 목표는 주전 경쟁에 이겨 경기 출전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장기 목표는 역시 1군에 드는 것이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꼭 이뤄내고 싶다.

**이승우** 메시나 네이마르, 수아레스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이 많은 걸 알고 있다. 나 또한 그렇다. 그날이 빨리 오게끔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승호** KBS N Sports 채널에서 바르사B가 속한 세군다B의 리그 경기를 중계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노력에 깊이 감사 드린다. 경기에 자주 나서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늘 노력하는, 겸손한 선수가 되겠다.

**이승우** 세군다B도 그렇고 프리메라리가도 그렇고, 새벽 시간에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스페인리그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는 팬 분들께 감사하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백승호, 이승우의 스페인 세군다B는**  
KBSNSPORTS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시작과 끝은 KBS N

KBS N,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제작 및 운영사업 수주

KBS N이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의 제작과 운영을 맡게 됐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축제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게 되어 관심과 기대가 남다르다.



KBS N이 25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제작운영 대행사업'을 수주했다. 이로써 KBS N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회식과 폐회식의 연출제작과 운영을 총괄한다. 이번 수주는 KBS N이 같은 계열사인 KBS 미디어, KBS 아트비전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수주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남다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KBS N은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제안서 총괄기획과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개폐회식을 통해 KBS N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전 인류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메시지를 담아 첨단 ICT 기술로 선보일 수 있는 초대형 퍼포먼스를 전 세계인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는 장애인 동계 올림픽으로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 일대의 주요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45여 개국, 3,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6개 종목의 메달을 두고 각축을 벌일 예정이다.



## 여자 농구는 KBS N Sports와 함께

WKBL 아카이브 센터 개관

한국여자농구의 역사를 모아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센터가 개관된다. 검색, 편집 시스템으로 더 쉽고 빠르게 여자 농구와 접하게 된다.

지난 11월 28일(월) KBS N은 상암동 KBS미디어센터 2층에서 WKBL 아카이브 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KBS N 이준용 대표이사과 송진현 부사장을 비롯하여 WKBL(한국여자농구연맹) 신선우 총재, 양원준 사무총장 등 여자 농구 관계자가 참석하여 개관을 기념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처음으로 시행되는 아카이브 센터 구축을 통해 WKBL은 KBS N에서 제공하는 생중계 영상은 물론 과거 경기 영상들을 보관하고 언제든지 검색 및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KBS N은 아카이브 센터 운영 관리를 통해 여자 농구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 12월 KBS 최고의 기대작, KBS N에서도 함께해요

<마음의 소리> <화랑> 편성

12월 KBS에 방영을 앞둔 웹드라마 <마음의 소리>, 사극 <화랑>. 두 편의 화제작을 KBS Joy와 KBS Drama에서 만날 수 있다.

오는 12월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KBS 화제작 <마음의 소리>와 <화랑>이 KBS Joy와 KBS Drama에서도 방송된다. 10년째 연재 중인 웹툰 <마음의 소리>의 레전드 편만 모아 재구성한 웹드라마 <마음의 소리>는 전체 재생 수 2천만 뷰를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KBS 2TV와 KBS Joy는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된 10개의 에피소드에 공중파 버전을 추가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혀 온라인 속 인기 안방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꽃미남들의 대거 출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화랑>은 드라마 사상 최초로 신라시대 화랑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청춘 사극이다. 여심사냥꾼 박서준, 박형식, 최민호 등이 출연해 연말을 훈훈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마음의 소리>  
KBS 2TV 12/9(금) 23:10 KBS Joy 12/12(월) 23:00

<화랑>  
KBS 2TV 12/19(월) 22:00 KBS Drama 12/25(일) 14:15(예정)

